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윤리와 사상

made by Jaewon Lim

1. 총평

- 신유형(?), 까다로운 선택지, 어려운 제시문까지도 꽤 있어 1컷 45~47 정도에서 형성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1컷은 45~46정도일 것 같은데.. 정답률 보면 정답률 40% 이하 문제도 없지만, 그렇다고 정답률 90%대의 공짜로 주는 문제들도 없는데, 이는 문제들이 대체적으로 까다로웠음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아직 학생들의 개념 공부가 미진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요.(이런 느낌이 드는 문제가 몇 개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자주 출제되지 않았던 내용도 몇 문제 출제되었는데, 출제되지 않을 것은 없으니 공부할 때 모든 것을 제대로 알겠다는 마음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2. 해설 (정답률은 메가스터디 기준)

1. (정답률 83%) 스피노자의 범신론, 결정론, 행복론까지 스피노자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제시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피노자의 자연신(=범신론)은 그리스도교의 인격신(=인격신론)과 비교해서 그 특징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정답은 1번. 쉽게 고를 수 있지요. 스피노자의 자연신은 모든 것의 내재적 원인(〈-〉 초월적 원인-그리스도교의 인격신)이라고 봅니다. 2번. 스피노자는 모든 감정을 버릴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3번. 그리스도교의 인격신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 스피노자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5. 스피노자는 우연이란 인식되지 않은 필연이라고 보면서, 자유의지는 허상일 뿐이라고 봅니다.

2. (정답률 78%) 나딩스의 배려 윤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히 두 번째 제시문, 자연적 배려와 윤리적 배려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잘 몰랐던 학생이라면 이번에 꼭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4번 선택지가 생소한 선택지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선택 비율 11%). 4번 선택지에서 고민한 학생이 있다면, 제시문을 조금 더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실전에서 모르는 것이 생각나지는 않으니까요). 평가원은 생소한 선택지를 줄 때, 정답을 명확하게 하거나 제시문에서 그 힌트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둘 다 아니라면, 그것이 소위 말하는 '킬러'문제가 되겠지요.). 4번 선택지 역시 "윤리적 배려는 자연적 배려가 발휘되기 힘들 때 요청된다."는 제시문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정의 윤리의 입장에 해당합니다. 4. 나딩스는 윤리적 배려가 자연적 배려에 근거하고 있다고 봅니다. 5. 배려 윤리는 정의윤리와 배려윤리가 상호배타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3. (정답률 71%) 사회계약론 문제입니다. 갑은 홉스, 을은 로크입니다. 을이 갑에게 제기할 비판은 명확합니다. '저항권이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지요. 홉스가 저항권을 부정한다고 보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이 부분은 교육과정 외입니다만. 그래서, 2018 수능 20번 ㄱ 선택지와 같이 다른 부분에서 틀린 이유를 줍니다.), 선택지에서 '적극적 저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4번 선택지(선택 비율 11%)는 문제를 잘못 읽은 학생들이 이렇게 많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보존 욕구가 사회 계약 합의의 토대라고 보는 것은 홉스 사회계약론의 기본 내용이지요. 1번. 구성원의 안전 보장이 사회 계약 체결의 결과라는 것은 두 사상가의 공통적 입장입니다.

4. (정답률 74%) 제시문의 사상가는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알고서 행하지 않는 앎은 '참된 앎'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지요. 4번 선택지(선택 비율 19%)는 '덕'이라는 키워드만 보고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생각한 학생이 많아 보입니다. 제시문을 읽을 때 '단어'를 보지 않고, '내용 독해'를 해야 함을 알려 주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5. (정답률 64%) 제시문의 사상가는 동학 사상가입니다. 제시문을 올바르게 독해해서, 사상가(또는 사

상)를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 1번 선택지(선택 비율 11%)는 후천개벽? 원불교! 라고 단순하게 생각한 학생들이 많아 보입니다. 후천개벽은 한국 신흥종교 사상의 공통적 특징입니다. 3번 선택지(선택 비율 14%)를 고른 학생들은 사람을 하늘처럼 섬기라(=시천주)는 단어만 보고 섣불리 고른 학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선택지를 제대로 봐야 합니다. 동학은 모든 규범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6. (정답률 54%) 그리스도교 문제입니다. 갑은 아우구스티누스, 을은 루터입니다.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으나, 종교개혁 이후 사상가들의 주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 보입니다. 시험에 잘 출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 선택지. 루터의 기본 개념인 Sola fide(오직 믿음), Sola scriptura(오직 성서)에 관한 설명입니다. 2번 선택지(선택 비율 22%)는 신을 '이성적으로' 향유한다는 표현이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은 이성적 인식을 '넘어서서' 실존적으로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3번 선택지(선택 비율 12%). 그리스도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나, 자율적인 구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신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7. (정답률 72%) 조선성리학 문제입니다. 갑은 이이, 을은 이황입니다. 제시문 자체는 매우 평이합니다. 문제 자체는 복잡해 보이지만 선택지를 읽을 때 도덕감정=사단, 일반감정=칠정이라고 해석하면 문제 자체도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제 윤리와 사상 시험지에서도 두 줄짜리 선택지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ㄱ. 이이의 칠포사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이는 사단은 선한 칠정의 별칭, 즉 칠정의 순선한 측면이라고 봅니다. ㄷ. 이이는 이황과 달리 측은지심(=사단)을 기가 발한 감정으로 봅니다. ㄴ. 이황은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다르다(각각 리, 기)고 봅니다. ㄹ. 이이는 칠정과 사단이 분리될 수 없다고 봅니다. 사단은 칠정의 순선한 측면이기 때문입니다(선택 비율 10%).

8. (정답률 61%) 정약용이 이이에게 제기할 비판을 묻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그 내용은 사단이 사덕의 단서가 아니라, 사덕을 형성하기 위한 시작이 되는 것라는 내용이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우리가 예상한 내용이 그대로 선택지에 있는, 쉬운 문제입니다. 사단이 '선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낯설었을 수 있는데 정약용은 사단이 사심(四心), 즉 선한 마음이라고 보지만 본성이나 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3번 선택지(선택 비율 11%). 이이의 입장입니다. 4번 선택지(선택 비율 14%). 사단은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9. (정답률 45%) 처음에, 문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롤스의 질서 정연한 사회인가..? 이걸 왜 물어봐? 설마 시민불복종을 물어보려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보았더니, 실상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공동체(수단적 공동체-구성적 공동체)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낯선 내용이 출제되면 반드시 제시문과 선택지를 연결해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 흔히 나오는, 비문학 독해 스타일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시문의 사상가는 일단 '자유주의'의 관점에 서 있습니다. ㄴ. 자유주의의 국가관입니다. 자유주의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국가의 개입은 정당하지요. ㄱ. 제시문의 사상가는 다양한 신념을 중첩하는 지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신념체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므로, 단일한 신념체계로의 통합은 옳지 않습니다(수능특강 147p 국가의 중립성). ㄷ. 구성적 공동체는 공동체주의의 공동체관입니다.

10. (정답률 69%) 사회정의 문제입니다. 갑은 왈처, 을은 롤스, 병은 노직임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ㄴ. 롤스는 자연적 우연성에 대한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인 차등의 원칙이 존재해야 한다고 보지만, 노직은 취득과 양도 과정에서의 부정의가 없다면 자연적 우연성에 대한 불평등을 시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이는 ㄹ. 선택지가 정답이 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ㄱ. 왈처는 전제에 반대합니다. (선택 비율 15%) ㄷ.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직책이나 지위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한하게 되면 기본적 자유(구체적 사례로 피선거권이나 선거권)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롤스는 긍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롤스는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반대(정의의 제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한 사상가입니다.

11. (정답률 61%) 국가와 윤리(정치적 의무의 근거) 문제입니다. 갑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흄입니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이므로 국가가 인간의 본성(더 좋은 상태인 선의 추구)에 의해 설립된다는 내용이 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선택지를 고른 학생들은 아직 여기까지 공부를 하지 않아 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12. (정답률 53%) 유교 사상의 전개(성리학 vs 양명학) 문제입니다. 갑은 주자, 을은 양명입니다. 두 사상가의 '양지' 개념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네요. ㄴ. 두 사상가 모두 양지가 선천적인 도덕 판단 능력이라고 봅니다. ㄹ. 양명의 지행합일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ㄱ. 주자는 하늘이 부여한 성이자 마음의 본체를 리(理)로 봅니다. (선택 비율 17%) ㄷ. 유학에서는 인간의 수양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것은 자신의 편벽된 감정을 바로잡기 위함이지 성정을 바로잡기 위함이 아닙니다. 맹자에 대해 백성을 교화해야 함은 맞으나, 본성을 교화해야 함은 틀리다는 것을 떠올리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13. (정답률 76%) 고대 그리스 사상 문제입니다. 갑은 플라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두 사상가의 '절제' 개념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플라톤에게 절제란 사주덕의 하나이며,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절제란 중용의 덕 중 하나이지요. ㄱ. 플라톤의 사주덕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절제는 욕망을 이성이 잘 다스려 탁월하게 발휘된 상태입니다. ㄷ.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절제란 중용의 덕 중 하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은 지성적 덕인 실천적 지혜가 없다면 형성될 수 없다고 봅니다. ㄹ. 두 사상가 모두 폴리스라는 정치 공동체를 중시하고, 그 속에서 가져야 할 개인의 덕을 강조한 사상가들입니다. ㄴ. 플라톤은 지혜, 용기, 절제, 정의라는 사주덕이 개인의 영혼의 탁월함이자, 공동체의 탁월함이라고 봅니다.

14. (정답률 81%) 갑은 장자, 을은 불교 사상가입니다(수특 48p 지문인데, 해설에도 사상가 이름이 없네요;;;). ㄱ. 장자는 무위 사상을 바탕으로 자신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과 하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ㄴ. 장자는 만물제동의 관점에서 모든 사물은 가치의 측면에서 똑같이 소중하므로, 만물의 타고난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긍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ㄷ. 불교 사상가들은 현상 세계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공(空)사상을 주장합니다. ㄹ. 도가와 불교 사상 모두 세계를 주재하는 절대적 존재를 상정하지 않습니다.

15. (정답률 62%) 갑은 데카르트, 을은 베이컨입니다. 경험주의와 이성주의 모두 진리 탐구 과정에서 이성의 역할을 인정한다는 점을 놓쳤다면 풀기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1번 선택지(선택 비율 12%). 데카르트는 경험적 관찰이 의심 가능하므로 경험적 탐구가 진리 탐구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2번 선택지(선택 비율 12%). 데카르트는 회의론자가 아닙니다. 데카르트는 사유의 제1원리라는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지식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16. (정답률 77%) 갑은 스토아학파 사상가, 을은 하이데거입니다. 2번 선택지. 스토아학파는 쾌락을 통해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연의 필연성을 인식하는 데에서 오는 평온함을 통해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지요. 1번 선택지. 스토아 학파 사상가들은 두려움이 주관적 판단(=자유의지가 존재한다)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정념이라고 봅니다. 3번, 4번 선택지. 하이데거는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이며 인간만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존재의 의미를 물을 수 있는 존재라고 보고, 불안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5번 선택지. 스토아학파 사상가들은 죽음은 필연적으로 겪는 사건이고, 하이데거 또한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고 봅니다.

17. (정답률 69%) 갑은 노자, 을은 공자입니다. 노자와 공자의 정치사상 차이를 이해하면 쉬운 문제입니다. 공자는 인륜과 도덕의 중요성을 강조하나 노자는 그것이 인위라고 보면서 반대하므로 X는 높음, 노자는 무위지치를 강조하므로 Y는 낮음, Z는 높음입니다.

18. (정답률 60%) 갑은 벤담, 을은 칸트입니다. 공리주의-칸트주의 문제의 전형입니다. ㄷ. 칸트의 의무론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ㄹ.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의무론은 '정언 명령'이라는 보편적 도덕 원리를 따라아 도덕적 행위가 된다고 봅니다. (선택 비율 20%) ㄴ. 칸트는 도덕의 목적이 모든 이성적 존재들의 행복 증진이라는 행복주의에 반대한 사상가입니다.

19. (정답률 65%) 처음 보는 모양이기는 하나,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각 사상가들 사이의 의견 차이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갑은 하이에크, 을은 케인즈, 병은 마르크스입니다. 수정자본주의자인 케인즈는 신자유주의자인 하이에크에게 시장이 완전한 기구라고 비판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1번 선택지. 두 사상가 모두 자본주의 사상가이므로 사적 소유를 인정합니다. 3번 선택지(선택 비율 11%) 마르크스는 '시장을 통해' 사익과 공익을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4번 선택지(선택 비율 13%). 민주사회주의의 입장에 해당합니다. 케인즈는 경제적 불평등이 의회민주주의에 의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5번 선택지. 하이에크의 입장이므로, 하이에크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20. (정답률 67%) 갑은 맹자, 을은 순자입니다. 두 사상가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입니다. ㄱ. 유학 사상은 수양을 통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ㄷ. 두 사상가 모두 백성을 교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선택 비율 11%) ㄹ. 두 사상가 모두 이상적 인간상으로 군자를 제시합니다. (선택 비율 12%)ㄴ. 맹자의 사덕에 대한 설명입니다. 맹자는 예가 사덕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